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2역대 24, 18-22
 [화답송] 시편31(30), 3ㄹ=4.6과 7-과 8ㄹ. 17과 21ㄹ- (© 6ㄹ 참조)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 2독서] 로마 5, 1-5

[복음환호송] 마태 5, 10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태 10, 17-22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해요!

성가	8시 미사	입당 287	봉헌 219 215	성체 165 161	파견 286
	11시 미사	입당 287	봉헌 219 215	성체 165 161	파견 286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성김대건안드레아사제순교자대축일(7월 6일)		연중 제15주일(7월 13일)		연중 제16주일(7월 20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안토니오(휘)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황데레사(혜정)
제 1 독서	정프란치스코(일환)	김길베르토(광호)	이바로로(명국)	정요한(석준)	강요한(신호)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정글라라(영희)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문골롬바(지영)	김안젤라(영선)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공감(共感) 시대의 신앙인

“존재한다는 것은 교류한다는 뜻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위해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면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그는 전적으로 항상 주변 속에 있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다.” (제러미 리프킨)

우리 시대를 ‘공감(共感) 시대’ 라고 부른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생각과 독단, 홀로서기만 강조하던 이기적 편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더는 남을 나와 다른 낯선 이요,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적이거나, 내가 보기에 잘못되었다고 야만인이나 병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나는 나만의 세상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가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남이 이미 본 세상이고, 남이 가르쳐준 세상이고, 남의 눈으로 보는 세상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존과 공감이 필요한 세상이다. 나의 배우자와 가족, 동료와 이웃들의 인생을 나와 별개의 삶으로 보지 않고 그들 인생 여정에 ‘참여’ 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남의 고통과 시련을 자신의 상처와 아픔으로 느끼고,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만큼 남을 사랑하고 인정할 줄 아는 ‘공감능력’ 이 필요한 세상이다.

‘공감시대’ 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기적 자기애에 익숙한 삶에서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스토리에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가난한 이, 병들고 지친 사람들, 불의로 쓰러져가는 이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 일부로 여길 수 있는 공감능력을 ‘나약함’ 의 신비에서 보여주셨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부러워하는 시대에 맞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나약함’ 의 자리야말로 보편적 공감이 확대되고, 희망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며,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순교의 삶은 과거처럼 목숨을 직접 바치는 용기가 아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기애(自己愛)로부터의 단절, 이웃의 애환과 고통을 사랑으로 함께 겪어주는 ‘통애(痛愛)’ 를 느끼는 것이다. 김대건 신부님의 삶은 한(恨)의 갈망을 지닌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던 통애적 열정의 모범이었다. 그가 품은 민족복음화의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적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 절실한 때이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강화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순’ 전히 어쩔 수 없이 ‘교’ 회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

저는 1998년 7월 3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오늘로 어느덧 사제생활을 한 지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고작 3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오늘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겨우 6개월 사목하시다가 잡혀서, 1년 만에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사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 되면 언젠가 청년 신자가 제게 했던 질문을 늘 자문하게 됩니다.

“신부님은 만일 박해 시대라면 순교하실 수 있으세요?”

청년은 제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한 짓곳은 질문이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 연! 히!!!”

그러자 청년이 의아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내가 순교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이야. 신부가 배교를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저 역시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대답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순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유학자로 외국어와 학식이 뛰어났기에, 그들은 신부님을 배교하게 해서 관직을 주려고 했으나, 신부님은 고문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니, 오늘 묻고 내일 물어도 이 같을 뿐이요, 때리고 죽여도 역시 이 같을 뿐이니 빨리 때려죽여 달라.”

사실 지금은 박해시대가 아니라서 순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박해시대보다 더 큰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보다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봉사나 희생은 힘들어서 안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 교육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헌금이나 나눔은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의로우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의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배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제인 저 역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한다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25살의 나이에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 7번 반만에 참수되신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로 저는 정말 편한 사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신부님의 희생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하는 어쩔 수 없는 순교가 아닌, 하느님을 향한 열정의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목자이며 사제인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제게 맡겨진 양인 신자분들도 배교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지형 신부
일반병원사목위원회
삼성서울병원 원목사제

말씀의 향기

우리는 지금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해 순교자성월의 마지막 주일, 본당에서 순교자 현양 마당극 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성당 내 카페에서 도미니코 수도회 스페인 신부님과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참으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심한 고초까지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도 자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사 일로 바쁘다,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 생활과 하느님은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주님께는 삶에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형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 요즘에도 순교자가 있나요?” 박해시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거한 순교자들과 배교하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 모두 인간적 고통과 슬픔, 희망과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이들보다 돈과 권력을 좇아 신념까지도 쉽게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늘 하느님을 가까이하면서 경외심과 기쁨 속에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성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무릇 그분의 삶이 나의 신앙적 지침이 되고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도마 형제님께서 중국 소팔가자에서 있었던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은 두 신부님께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부제품을 받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두만강 유역의 훈춘까지 한번 왕복하는데 두어 달 넘게 걸리는 탐색여행을 다섯 차례나 하고 돌아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덩치가 크고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걸며 활달했던 것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총각 처녀의 중매에 나서 결혼을 성사시켰고 그들 후손이 번성했다는 이야기, 신학생을 키웠다는 이야기, 신부님이 계셨던 소팔가자 성당에서 신부님이 나왔을 뿐 아니라 주교님이 두 분이나 나오셨다는 이야기

를 듣고, ‘그곳은 하느님과 사람에게 대한 신부님의 사랑이 절절히 마음에 다가오는 곳이구나.’ 하며 뜨거운 기운이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교우들아 보아라! 부디 큰 사랑을 이루어 이 세상 평안히 살아가며, 이다음 천주대전에서 영원히 만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한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을 빌려 다짐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묘하게 사랑하시는지를….

김병각 베드로
경향신문 부장
전 서울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천주님은 임자이기 때문에
임자를 알아보지 못하면 세상에 난 보람이 없고,
임자를 알고 난 후 배반하면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글_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가톨릭전례

교회의 4가지 특성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네 가지 특성 중 “거룩함”과 “보편성”을 제외한 두 가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열망은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성령의 부르심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820항).-

2)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시고 선교에 파견하신 증인들인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유산을 보존하고 전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들을 계승한 사람들, 곧 교황과 주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

가톨릭교회는 12사도의 후계자들인 교황님과 주교님들의 지도를 받고 있고,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정통적인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사도들이 받은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파견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는 말은 교황님, 주교님으로부터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전체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도들에게 맡겨진 “파견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톨릭 교회만이 정통”이라고 허세만 부리고 있다면 무책임한 일입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옵니다.” 교회의 이 네 가지 특성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부터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기도 했고, 수많은 잘못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손상시키기도 했고, 끼리끼리의 친교만을 추구함으로써 보편성을 상실하기도 했으며, 사도들로부터 이어져오는 사도적 소명(선교 사명)을 게을리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4가지 특성은 교회의 현재 모습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끝 날까지 살아야 할 목표이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4가지 특성을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끊임없이 쇠신되어야 합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 사목국장

1)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됨”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아서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과 현대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신자들이 처한 사회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의 교회와 아프리카의 교회, 한국의 교회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을 “하나”의 가톨릭교회로 묶어 주는 공통의 요소가 있기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하나 됨”이 교회 역사 속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동방 정교회와 개신교회가 갈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분열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2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갈라진 형제들을 무시하고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회 다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개신교회에는 좋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들 안에서 지금 태어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분열 죄로 비난받을 수는 없으며, 가톨릭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끌어안는다. ... 세례 때에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교회의 자녀들을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한다.” (일치 교령, #3항)

둘째, “각자 자기 좋은 방식으로 예수님 믿고 살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의 분열 모습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교회는 끊임없이 갈라진 형제들과 대화하면서 교회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이 일치를 바라신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 수난 때에 성부께 기도하셨으며, 당신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다. “아버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21).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재건하려는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외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7월 6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고아오스딩	황안나
	연	김바오로(윤정)	이아나스타시아
	연	정베드로/김마리데레사	황아가다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계영실	이카타리나(영보)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넷스
	생	서데레사(춘애)	조바실리오(진행)
	생	서데레사(춘애)	김안젤라(영선)
	생	권바실리오(영현)	정스텔라(애리)
	생	조엘리사벳(영순)	한안젤라
	생	한대건안드레아(호중)	한안젤라
	생	홍루시아(지영)	이아가다
	생	송셀리나(재아)	송바오로(민규)
	생	김엘리사벳	김유릿다
7월 8일 화	연	최베드로(취종)	가족
	생	김엘리사벳	익명
	생	김엘리사벳	이요한 가정
7월 10일 목	생	신마태오(현규)	김안드레아(명환)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104	199	-	303
헌 금	\$590	\$1,238	-	\$1,828

< 교무금 > \$2,750

김영민(5-6) 허은석(5-6) 홍흥기(3-12) 이정연(7)
조상희(7) 윤순의(5-6) 김세록(4-7) 이인학(4-6)
송분학(7) 김정복(7) 이건용(7) 박호영(7)
임희숙(5-6)

< 성소후원금 > \$180

허은석(5-6) 홍흥기(3-12) 송분학(7) 김정복(7)
박호영(6-7)

< Bishop's Appeal >

홍흥기(3-12)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정병구 베드로/분다 맥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예비자 입교식 : 오늘 교중미사 중

◆ 수요일/금요일 아침미사는 대건회관 성체조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 주일학교 캠프 기금마련을 위해 오늘 교중미사 후  
카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사목회의 : 7월 6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대건장학회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8일 ~ 7월 27일  
장학금 수여식 : 8월 17일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oakcc.scholarship@gmail.com

◆ 레지오마리아에서 매일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 주십시오.

꾸리아 단장 김경년 베드로 510-693-0920

◆ 주일학교 여름 캠프

- High School Camp(incoming 10th to 13th graders)  
: July 27 ~ July 30(costs \$180)
  - Junior High Camp(incoming 6th to 9th graders)  
: July 30 ~ August 1(costs \$145)
  - \* \$20 sibling discount
- 문의 : campdirectors@gmail.com

**7월 구역모임 고린도전서 9-10장**

|        |             |             |
|--------|-------------|-------------|
| 1 구역   | 7월27일(일) 6시 | 최재준 토마스 맥   |
| 2 구역   | 7월27일(일) 6시 | 김종성 바오로 맥   |
| 6 구역   | 7월19일(토) 6시 | 정병구 베드로 맥   |
| 7-1 구역 | 7월26일(토) 2시 | 파운더스룸       |
| 7-2 구역 | 7월26일(토) 6시 | 성당 교육관      |
| 8-1 구역 | 7월26일(토) 5시 | 조진행 바실리오 맥  |
| 9 구역   | 7월19일(토) 6시 | 신기수 크리스티나 맥 |

◆ 제 20 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9일(토) 오전 8:30 - 오후 6:00

주제 :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록21:5)

강사 :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참가비 : \$25(Pay to the order of KSCNC)

접수 : 천종욱 다니엘 510-684-7207

\* 단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여 주십시오.

(버스비 : \$10, 환불 불가)

◆ 향심기도 피정

일정 : 8월 15일(금) 저녁 7시 - 8월 17일(일)

장소 : Danville San Damiano 피정 센터

지도 : 이승구 신부님(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비용 : 2인 1실(\$230), 1인 1실(\$280)

문의 및 신청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대건안드레아(7/5) : 최민우, 김명환, 문재균

\* 베네딕토(7/11) : 최환준, 조관식

\* 베로니카(7/12) : 유낙양, 장진원, 이기희, 이경란,  
송일란, 이성연, 전진영, 이미연

**안국학교 안내**

\* 개강일 : 9월 6일(등록비 \$300)